

# 광주시-나주시 '농어촌버스 갈등' 골 깊어간다

### 국토부 공식협의체 구성 상생·협력 권고 불구 합의 또 실패

### 광주, 운행거리 축소 건의 계획...나주, 정류장 확대 조정 신청 움직임

나주시지역 농어촌버스가 광주도심 일대를 운행하는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나주시는 국토부에 광주권내 나주시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한 정류장을 확대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이후 4번째 조정신청이며, 그동안 3차례의 조정신청은 모두 기각되거나 일부 수정·인용됐다.

반면 광주시는 오는 8월 광주지역 경유 농어촌버스 운행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도간 조과운행 거

리를 현행 시·도간 경계지점으로부터 30km에서 5km로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광주지역에서의 농어촌버스 운행 범위를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는 해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되레 농어촌버스의 운행 거리를 줄여달라며 맞서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광주시

나주시에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으려며 나주시의 조정신청을 기각했는데도 두 지자체는 이견 조율은 물론 협의체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는 나주시의 나주교통 999번 버스노선 조정 요구를 기각했다. 나주시는 전남대 후문까지 가는 나주교통 999번 버스의 광주 시내 구간 승하차 정류소를 현재 15곳에서 37곳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나주시의 조정 요구에 대해 "공식협의체를 통해 광주와 나주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고 권고했지만 광주시와 나주시는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15곳의 광주지역 승하차 정류소를 41곳으로 26곳 더 늘려달라며 국토부에 재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나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농어촌버스 점유율이 22.2%에 달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 간다며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농어촌버스의 광주지역 운행에 따라 연간 250~300억원의 운송수익금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인근의 담양, 장성, 화순, 함평 등지의 반발과 추가 운행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화순·담양·장성·함평지역의 농어촌버스 222대가 하루 2022회 운행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광주시,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관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지자체 중 최우수기관(1위)에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 재난 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단위 훈련이다.

시는 이번 훈련에 대규모 지진 복합재난을 설정, 600여 명의 유관기관·단체,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드론, 헬기, 제독차량을 비롯한 현대식 첨단장비를 총동원해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게 훈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획단계부터 시민체합단을 구성,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콘셉트를 '시민과 함께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정하고 불시 화재대피훈련과 재난취약계층 재난 대비 훈련 등 다양한 체험형 훈련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시민들과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방위적인 홍보, 체계적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및 활용 실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향상, 안전문화실천운동 전개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대통령 기관표창, 포상금 3000만원, 2019년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와 함께 전국 재난관리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완도군청에서 (주)청산바다, 완도농협, 평화물산, 바다항기, 누리영어조합법인, 성부수산 등 6개 기업과 307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전남도·완도군, 수산식품 가공업체 6곳과 307억 투자 협약

전남도와 완도군은 19일 완도군청에서 수산식품 가공 업체 등 6곳과 총 307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서 전북 양식인들이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 청산바다는 완도 죽청농공단지 5000여㎡에 75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전북 통조림 등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가공된 전복은 삼성웰스토리, 신세계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도 수출한다.

완도농협은 완도 해양 생물특화단지 4000여㎡에 58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 받아 공동 선별, 저장,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한다.

평화물산, 바다항기, 누리영어조합법인, 성부수산은 완도 해양생물특화단지과 죽청농공단지 투자를 약속했다. 전남도는 투자가 실현되면 모두 13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월 분양을 시작한 완도 해양생물특화단지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전체 분양 대상 7만845㎡ 가운데 2만875㎡를 분양, 30%의 분양률을 기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공기업 수장들 떨고 있다

### 이용섭 시장 첫 공공기관장 회의서 방향성 강조 "날 더운데 양복 저고리 벗자" "우린 옷 벗는데 민감"

"날이 더운데 양복 저고리는 벗고 회의를 하시죠." 19일 오전 첫 공공기관장 회의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더운 날씨를 감안, 기관장들에게 편하게 회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건넨 말이다. 하지만 정작 기관장들은 저고리 벗기를 주저했다. 한 기관장은 "우리는 옷 벗는데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해 실소가 터져 나왔다. 후문이다.

민선 7기가 출범한 뒤 민선 6기에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기관장들이 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이날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광주"라는 자신의 시정 철학, 혁신, 소통, 정령 등 3대 시정 방침 등을 기관장에게 설명했다. 덧붙여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 등 자신이 생각하는 3가지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을 언급했다.

특히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저와 철학과 가치가 같지 않으면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며 "100m를 10초 이내로 달린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 잘 달리지 못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자신의 철학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미심장한 표현도 있었다. 이 시장은 "임기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임명권자는 시민 권익과 광주의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기관장은 바깥 권력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되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그동안 중앙정부, 감사위원회, 관련 부서들의 경영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임기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공공기관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드리는 의미에서 일상적인 업무는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며, 2개월에 한 번씩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8개 '마을커뮤니티 공간' 사업 본격 추진

### 마을회관 등에 쉼터·마을카페 등 조성

광주시가 올해 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8개 단체의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을 내에 제공,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주민센터 창고나 학교 빈 교실,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 빈 공간 등 유휴공간을 주민교육장, 주민쉼터, 마을카페 등으로 조성한다.

먼저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가 주민 회의를 거쳐 장소, 공간 활용방안 등을 결정해 공모에 참여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2016년 시교육청과 협업체 금융평생교육관에 청소년 공간 '친구네집(월산동)'을 조성하는 등 7곳의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지난해에는 아파트 내 자재창고를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함께 사용하는 '폼다(금호1동)' 등 12곳을 개소했다. 올해는 동 주민센터에 유휴공간에 공간을 조성하는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8곳의 공간을 마련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018년 9월 2일 ~ 11일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참가신청**

-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7월 19일(목) ~ 7월 27일(금)
- 구비서류 : 선수등록 신청서, 팀단체사진
- 선수등록은 23명으로 제한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될 수 있음

**참가팀수**

무등·광일 토너먼트 각16개팀(총 32개팀)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 무등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으며 선수로는 1명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음(단 투수·포수 금지)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 (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광일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음(단 선수로 경기 참여 불가능)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 (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시상**

-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 최우수감독상
- 최우수선수상
- 우수선수상
- 최우수심판상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GBSA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GWANGJU BASEBALL & SOFTBALL ASSOCIATION